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끼임'이라고만 작성해도 될까요?

사고유형만 적는 위험성평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실무 작성방법

유해·위험요인은 단순한 사고명보다, 실제 작업상황과 위험원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왜 '끼임'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사고의 종류만 보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험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험성 결정과 개선대책 수립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가 읽었을 때 실제 위험상황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핵심: '끼임'은 결과일 수 있지만, 위험요인은 작업상황까지 보여야 합니다.

02.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합니다

부족한 작성

프레스 작업 / 끼임

컨베이어 작업 / 끼임

절곡기 작업 / 끼임

지게차 작업 / 충돌

개선된 작성

소재 위치조정 중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손이 협착될 위험

제품 걸림 제거 중 체인·스프로킷 구동부에 손을 접근하여 손가락이 끼일 위험

소재를 손으로 지지하면서 절곡하는 과정에서 상·하 금형 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될 위험

적재물로 시야가 제한된 지게차가 통로 교차구간을 이동하면서 보행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

03. 실무 작성 공식



어떤 작업을 할 때

+



어떤 위험원·위험부에

+



어떻게 노출되어

+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시

프레스 소재 위치조정 중 작업자가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손이 협착될 위험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가 읽고 실제 위험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04. 특히 놓치기 쉬운 작업



청소



점검



조정



제품 걸림 제거



금형 교체



유지보수·시운전

정상 생산작업뿐 아니라 비정상작업·보조작업에서도 끼임·말림·협착 위험이 자주 발생합니다.

05. 위드 안전컨설팅 실무 포인트



'끼임', '충돌', '추락'만 반복하지 말고 실제 작업상황을 함께 표현하세요.



근로자가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위험요인일수록 적절한 개선대책을 세우기 쉽습니다.



유해·위험요인 작성이 좋아지면 위험성평가 전체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위험성평가표, 지금 점검해보세요!

- ✓ 사고명만 적고 있지는 않은가?
- ✓ 작업상황과 위험원이 드러나는가?
- ✓ 개선대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안전한 현장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좋은 위험성평가표는 '사고명'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상황'을 보여줍니다.

